

정읍시 귀농귀촌 1번지 위상 입증

지원사업 전국 1위·전국 2위 농림부 성과 평가 장관 표창 체험학교·융화 사업 등 호평

정읍시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귀농귀촌 진짜1번지'로서 위용을 과시했다.

정읍시는 올해 추진했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내며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정읍시가 전북도내 1위에 올랐고 전국 종합 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전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시는 귀농·귀촌 유치 홍보와 유튜브 마케팅, 비대면 쇼핑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지역 리더 간담회, 마을별 환영회 등 지역민과의 융화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도시민 농촌 유치와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각종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1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진섭(가운데) 정읍시장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은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는 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계해 귀농·귀촌 전담 기구와 귀농귀촌학교 운영, 도시민 상담 홍보·교육, 귀농 체험(현장실습)학교 운영, 밀착형 농가체험단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마을환영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

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거둬으로써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최강 일반지임을 전국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하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철새먹이 벗짚준치사업비 1억6000만원 확보

동림저수지 1km 이내 농가 인센티브

고창군이 동림저수지 일원 겨울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벗짚준치사업)' 예산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제도다.

벗짚준치 사업은 겨울 철새들에게 나뭇잎을 이용한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확이 끝난

후 벗짚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거나 10~15cm로 썰어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다.

대상 지역인 동림저수지는 멸종위기종인 가장 오리와 큰기러기, 큰고니, 청둥오리 등이 해마다 월동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군은 2014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사업비 3300만원을 확보해 동림저수지 1km 이내 농경지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계약단가 m당 45원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해 성내면·흥덕면 일원의 51농가 300필지에

3500만원 사업비를 지급했다.

군은 내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비가 3배 이상 확보된 만큼 사업 대상지를 수년 2km 이내로, 계약단가 또한 m당 45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동림저수지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 도래지로 서식하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 주민의 소득증대에 힘써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우수 기관 선정

전북도 평가...생활성 연소 저감 주효

순창군이 전북도가 주관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순창군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생활성 연소 저감' 이행 분야에서 호평을 받으며 군 단위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생활성 연소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지역 5곳을 지정하고 불법소각 근절 홍보와 불법투기 및 소

각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30건을 단속했고 400여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또 올해 영농폐기물 223톤을 처리하고 '클린 순창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해 불법투기 폐기물 및 하천·하구 쓰레기 210톤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이와 함께 '이동 배출원 저감'을 목표로 관련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96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DPF) 지원 78대, LPG화물차 구입 지원 10대, 친환경 전기차 45대도 보급했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10대)를 지원했다. 내년도 예산도 확보(30대분)한 상태다.

이 외에도 산업부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기·악취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특별점검과 민간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 사업장 328개소를 점검해 2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했다.

영세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2억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 기업 부담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에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익산시, 농업 발전 이끌 청년농업인 양성 집중

올 45명 월 100만원 정착금

익산시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청년후계농 45명을 선발해 영농 정착지원금으로 월80만원-1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명의 청년후계농을 양성했다.

또 후계농유자금 3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청년농의 초기 영농기반 확보에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을 추진해 농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모했다. 시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기술 농업사업을 선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선진영농기술 도입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융복합 자립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드론지원사업 등 시설개선, 영농기반 현대화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유대감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야(夜)한 농담(農談)' 강좌를 통해 예비청년후계농들과 청년농업인간 만남과 창업 정보 교류, 역량개발에 집중해 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의 농업을 지켜내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이환주(왼쪽 네번째) 남원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남원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일리는 시삽을 하고 있다.

남원시,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사업 '첫삽'

중동리 원에 3만7209㎡ 규모 착공

남원에 미꾸리 양식단지가 조성된다.

남원시는 주생면 중동리 일원 미꾸리양식단지 부지에서 '남원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미꾸리양식단지 조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4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작하는 양식단지는 3만7209㎡ 규모로 조성된다.

남원의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한 거점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을 통해 양식단지에는 토종 미꾸리 실내양식장 부지와 육종연구 및 종묘생

산 시설, 관리동, 침전조, 우수지 등이 갖춰진다.

양식단지가 준공되면 농가들이 참여하는 미꾸리 실내양식 시설 20동이 운영되며 1차 목표로 관내 미꾸리 수요량 130t을 공급함으로써 15억원의 농가소득이 창출된다.

토종 미꾸리 추어탕 가공 활성화를 통해서도 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차 목표로 관외 남원추어탕 업소에 500t 공급이 달성되면 양식,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로까지 발전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특화 사업이 될 전망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군산시 내홍동 오션클래스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맞붙이 가구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문을 열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여가부-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돼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자치적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열린 육아공간이다.

도서와 장난감 등 80여종이 비치됐으며, 초등학교 생을 대상으로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돌봄장소로 활용된다.

이동기 군산시 여성가족과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군산시가 양육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